

MB “정치보복” 발언에 秋·安 “적반하장”

秋 “대국민 사과해야”...安 “상식 무너뜨리고 국격 훼손” 洪 “보수 하나돼 갈춤 막아야” 옹호...지지층 결집 주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적폐 청산’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전날 이 대통령의 공화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 전 대통령을 ‘뺨뺨하고’ 강력 비난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의 적폐 청산 작업을 ‘망나니 갈춤’에 비유하며 이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붕괴한 보수진영이 재결집할 조짐을 보이며 정계구도가 또다시 ‘진보 vs 보수’의 대립 구도로 회귀하는 것 아닌가 하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의 ‘정치 보복’ 발언과 관련, “군과 군 정보기관을 권력의 하수인, 흥신소 취급한 본인

이 할 말은 아니다”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추 대표는 또 “정치 보복 프레임이 걸려있지만, 범죄 응징과 처벌은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며 “전 대통령이라면 의혹에 대해 정정당당히 해명하면 될 일을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더 공격하게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의 국정농단 진상 규명은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지도부도 이 전 대통령을 향해 ‘적반하장’, ‘뺨뺨이 가관’이라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자들에게 상식을 벗어난 질문을 하지 말라 역정을 내고,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은 품격을 생각하라고 했다니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며 “대선개입 댓글 의혹, 블랙리스트 의혹,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상 취소 청원 공작 의혹, 국군 사이버사령부 온라인 여론조사 활동 등은 국민의 상식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격훼손·법질서 위배로 이 전 대통령은 상식과 품격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적폐의 뿌리가 전 대통령의 뺨뺨이 갈수록 가관”이라면서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한민국을 총체적인 적폐로 병들게 한 장본인인 이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석고대죄하고 통렬하게 반성·사과해야 한다”며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즉각 수사하되 정치보복이라는 빌미를 주지 않도록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에 철저함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정부의 ‘적폐 청산’ 활동을 겨냥, “정부·여당이 이 나라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미래를 열어달라는 국민적 여망을 뒤로하고 있다”며 “최근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행태를 보니 마치 조선시대의 망나니 갈춤을 연상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과 보수우파 세력은 하나가 돼 정치보복에 혈안이 된 망나니 갈춤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보수우파 진영의 결집을 촉구했다.

그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당 정치보복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지만, 힘이 부친다”며 보수진영 단합을 주문했다.

홍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이 전 대통령의 석고대죄와 통렬하게 반성·사과해야 한다는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즉각 수사하되 정치보복이라는 빌미를 주지 않도록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에 철저함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오전

‘반쪽’된 원내대표 회동

국민의당 불참...정의장 “2+2+2 협의체로 법안처리”

여야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주례회동을 갖고 원내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나 반쪽 회동에 그쳤다.

일단 이 주례회동은 4당 원내대표가 참석 대상이지만 최근 바른정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잃은 탓에 3당 원내대표만 대상이 됐다. 더욱이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까지 의원총회를 이유로 불참하면서 이날 회동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등 평소 인원의 절반인 2명만 참석했다.

회담이 시작되자 정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교섭단체가 줄었는데, 이제 우리 3 교섭단체가 정해진 의사일정을 제대로 합의해 잘 처리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의장은 비공개 회동에서 법안 처리 속도를 내기 위해 “상임위법안처리 실적을 공표할 것”이라며 “이번 주 안에라도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 부대표로 구성된 ‘2+2+2’ 협의체를 운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자리에서 우 원내대표와 정의원 원내대표는 홍준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부적합하면 부적합한 대로, 적합하면 적합한 대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촉구한 반면 정의원 원내대표는 “우리 당 으로서는 보고서 채택까지는 할 수 없다”고 맞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존폐위기 바른정당 유승민 등판 “강철 의지로 버티자”

득표율 56.6%...당 대표 선출 하태경·정운천·박인숙 최고위원 대선후보 3인 야당 대표 ‘기록’

바른정당 새 대표에 4선의 유승민 의원이 선출됐다. 유 의원이 13일 열린 바른정당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거머쥐면서 지난 5·9 조기 대선에 나섰던 주요 후보 3인이 일제히 야당 대표를 맡게 되는 기록도 세우게 됐다.

유 신임 대표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지명대회’에서 1위를 기록했다. 유 대표는 책임·일관·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한 결과, 1만6450표(득표율 56.6%)를 획득해 당 대표로 선출됐다. 이어 하태경 의원(7132표, 24.5%)과 정운천 의원(3003표, 10.3%), 박인숙 의원(1366표, 4.7%)이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입성했다.

바른정당 창업주인 유 대표는 이날 전당을 통해 ‘5·9 대선’ 패배 이후 6개월 만에 당의 전면에 나서게 됐다. 유 대표는 수락 연설을 통해 “지금 우리는 죽음의 계곡에 들어섰다. 원내교섭단체가 무너져 출고 배고픈 겨울이 시작됐다. 이 겨울이 얼마나 길지 풀리는 모른다”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뚝뚝 뚫어 강철같은 의지로 이 죽음의 계곡을 건너다면 어느새 겨울은 끝나고 따뜻한 새봄이 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바른정당을 지키겠다. 개혁보수의 창당정신, 그 뜻과 가치를 지키겠다”며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바른정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지명대회에서 유승민 신임 당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초심으로 돌아가서 같이 하자. 우리가 합의한 대로 나라의 미래와 개혁의 길에 대해 뜻을 같이하는 중도보수통합을 위해 계속 노력하자”고 단합을 호소했다.

유 대표가 당권을 거머쥐었지만, 앞날은 가시밭길이다. 무엇보다 자신이 주도해서 만든 바른정당 당세가 위축될 대로 위축된 상황에서 당을 이끌게 된 만큼 본격적인 리더십 검증무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바른정당은 올해 1월 창당 당시 33명의 의석을 가진 원내 4당으로 출발했으나, 소속

의원 22명이 두 차례에 걸쳐 탈당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면서 11석의 비교섭단체 정당으로 위상이 급속히 추락했다. 바른정당에 남은 잔류파 의원들은 앞서 통합파 의원 9명이 한국당으로 복당하는 과정에서 ‘한 달 안에 중도·보수 통합 논의를 진전한다’는 데 합의해 당 진로를 둘러싼 갈등을 일단 봉합해 놓은 상황이다.

유 대표로서는 개혁보수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앞으로 중도·보수통합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 성과를 내야 하는 과제

를 안게 됐다.

유 대표가 이날 바른정당 대표에 선출되면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 이어 지난 5·9 대선에서 패배한 주요 후보자 3명이 모두 야당 대표 자리에 올라 당을 이끄는 상황이 됐다.

지난 대선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이들이 향후 보수통합, 중도통합, 대야투쟁 등을 놓고 주요 국면에서 야당 대표로서 어떤 협력·경쟁구도를 만들어갈지도 주목된다.

/김형호기자 khh@

박지원 “北 2년 내 6자회담 복귀”

국민의당 전남도당 특강...바른정당과 연대 불가론 재확인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13일 “1~2년 안에 김정은이 6자 회담으로 복귀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민의당 전남도당 초청으로 열린 국민 정치 아카데미 특강에서 이같이 밝히고 “김정은은 경제 지원을 받고 북미, 북일 관계개선 차원에서 NPT(핵확산금지조약)에 재가입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받아 결국 북핵은 동결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같은 전망 배경에 트럼프의 ‘사업가적인 기질’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 전 대표는 “트럼프는 자신의 낮은 국내 지지도로 인한 한계를 잘 알기에 이번 한·중·일 방문을 통해 통상압력 외교를 펼치면서 재선 준비를 하고 있

다”면서 “그의 사업가적 기질이 오히려 북핵 문제 해결의 접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강한 통상압력으로 시진핑에게 대북 제재를 강화하게 하고 제재는 북한 주민들에게 전가되겠다”고 전망했다.

이어 당 안팎의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와 관련 “바른정당은 없어졌다. 이제 몇 명 남을 것”이라며 “거기(바른정당) 통합은 물론 연합·연대도 할 필요 없다”고 불가론을 거듭 확인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 ‘비례대표 국민공천 심사제’ 추진

정발위 3차 혁신안 발표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는 13일 총선 비례대표 공천 때 국민 평가를 반영하는 ‘비례대표 국민공천 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고위원회의 등 거쳐야 할 과정이 남아 있어 도입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발위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각 분야 비례대표 후보자를 국민심사단에 남

기면 심사단이 2~3배수로 후보를 압축하고, 공천관리위→당무위원회→중앙위원회 투표를 거쳐 결정토록 하는 제도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5만명 이상의 국민이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대변인은 전했다. 다만, 외교·안보 등 특정한 분야의 비례대표 추천은 국민공천 심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20대 청년들에 대한 가산점을 확대하고, 전략지역(취약지역) 후보자의 당선인정권 순번 내 배치 비율도 높이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 대학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3년
1954~2017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대학원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특별전형

① 원서접수 : 2017. 11. 21(화) ~ 11. 29(수)
② 전형일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전형일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45	2017. 12. 1(금) 오후 2:30

■ 일반전형

① 원서접수 : 2017. 12. 1(금) ~ 12. 12(화)
② 전형일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전형일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20	2017. 12. 15(금) 오후 2:30
		신학과(Ph.D.)	6	2017. 12. 15(금) 오전 9:40
		목회학과(D.Min.)	2	2017. 12. 15(금) 오전 9:40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5	
일반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코칭심리학과(D.Psy.)	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5	
석사	신학과(Th.M.)	25	2017. 12. 16(토) 오후 2:40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학과(M.S.W.)	20	
국제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10	
		한국어교육학과(M.A.)	20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7. 12. 30(토) ~ 2018. 1. 2(화)
: 전형일 : 2018. 1. 9(화)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 대학원 0621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리차소로 36